

##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나는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어린이 집

현대 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육아를 사회와 가정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해 현재 인천지회 만월 어린이집과 대전·충남지회의 오류 어린이집, 경남지회의 중앙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가족보건복지 서비스 전문 공공기관으로 내 아이처럼 소중하게 엄마의 마음으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편안하고 안전하게, 밝고 건강하게-대전·충남지회

대전·충남지회 영아전담 오류 어린이집은 대전에서 처음으로 개원되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결같이 영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어 현재 지역 대학에서 현장 견학과 실습을 원하는 최고의 어린이집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원장 이하 교사 11명, 의사, 간호사 등 총 17명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영아의 연령은 신생아기(1~5개월), 이유기 영아(6~14개월) 걸음마기 영아(24~35개월)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초기 적응지도, 기본 생활습관 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도, 놀이활동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처음 개원했던 7년 전 생후 5개월 된 영아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 보챘었지만 이젠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다시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에서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원아들은 거의 하루에 12시간(07:30~19:30)을 어린이집

에서 생활하므로 선생님들은 엄마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로 영아를 돌보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교재·교구를 개발하여 좋은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영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밝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영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 아이 성장에 맞게 사랑으로 보살핀다 인천지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서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 2동에서 만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1995년 12월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로부터 위탁받아 현재까지 8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다.

어린이집은 생후 7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7개월~24개월, 2세~3세, 4세 이상, 7세미만의 어린이들이 10명이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점심이나 간식을 자연식 위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등·하원을 돕고 있다.

국민 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의 아동,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 부모가 장애인 가정의 자녀 등 9명에 대해서 보육료도 면제해 주고 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지침에 따라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추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같이 진행되며 계절별 현장중심별 자연 학습과 연령별 발달 단계별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전문인력과 최신 교구·교재를 구비하는 등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